

순수하고도 비극적인 사랑이야기

빛소리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오는 30일 광주 아트홀 공연

아트홀 페이스북 온라인 생중계

1849년 파리. 비올레타의 살롱에 사교계 사람들이 모여들고 화려한 무도회가 열린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저마다 축배의 잔을 올리고 파티는 무르익는다. 현기증의 고통으로 화려한 파티를 즐기지 못하는 비올레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던 알프레도는 오래전부터 간직해 온 연정을 고백하지만 이내 외면당한다. 가장 순수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서막이다.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 아트홀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무대에 올린다.

알렉상드르 뒤마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라 트라비아타’는 19세기 오페라의 독보적인 작곡가였던 ‘주세페 베르디’ 중기 걸작으로 역사상 최고의 오페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라 트라비아타’는 ‘길을 잘못 든 여자’라는 의미다. 사교계 비올레타와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 사랑을 통해 잃어가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랑에 관한 질문과 고민을 담고 있다. 상류사회의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하는 내용이란 점도 높이 평가받으면서 당대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다.

작품은 비올레타의 비극적인 삶을 핵심적으로 그려내지만, 그 속에는 신분 격차, 은밀하게 이뤄지는 상류사회의 향락과 공허한 관계들 속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 장면

/빛소리오페라단 제공

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에 대해 고민한다. ‘축배의 노래’, ‘고향 프랑스의 산과 바다를 생각해보렴’과 같은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은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극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번 공연은 빛소리오페라단 최덕식 단장이 연출을 맡았고 국립합창단 이사인 박미에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가 지휘봉을 잡았다.

공연의 모미는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이다. 비올레타 역에 소프라노 양희원(전문성립학가), 안나나 역에 소프라노 이현숙(광양시립합창단 단원), 알프레도 역에 테너 이원용(경북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겸임교수), 제르몽 역에 바리톤 김중우(오페라 전문가)가 출연,

극을 이끌어 간다.

특히 여주인공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프리마 돈나(prima donna) 오페라’ 공연으로 유명한 만큼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 양희원의 다양한 창법과 음색에 집중해 보는 것도 핵심 감상 포인트다.

공연은 1막에서 1849년 파리 살롱의 화려한 무도회, 2막 작은 별장에서는 지내는 알프레도와 비올레타, 3막에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비올레타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 트라비아타’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광주 아트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전화(010-2228-7040·광주아트홀 한은주)로 하면 된다./이나라 기자

빛고을예술단, 30일부터 ‘사랑의 콘서트’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빛고을예술단이 오는 30일부터 10월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광주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사랑의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는 퓨전재즈밴드 ‘더블루이어즈’(청년들)의 연주를 시작으로 ‘지금은 만나볼래요’의 초대가수 진이랑의 가요, 퓨전난타(지스타퓨전난타)·민요(김성원), 7080 통기타(김동규), 색소폰(박용주 음향감독), 희극·폼바(김상기 예술총감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더블루이어즈’는 색소폰, 보컬,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피아노 6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관객과 공감을 추구하는 퓨전재즈밴드다. 국악과 함께 퓨전 연주 그리고 대중적인 연주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연은 국악, 보



더블루이어즈

컬, 타악, 클래식 등 여러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며 수많은 무대 경험과 뛰어난 연출력, 폭넓은 레퍼토리가 기대된다.

사회는 박광신 아나운서가 맡는다.

한편 빛고을 예술단은 지난 2005년 8월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으로 창립 후 ‘사랑의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역의 사회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732차례 무대에 올랐다./이나라 기자



광주 무형문화재 흥보가 예능보유자 김선이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 무형문화재 김선이 ‘전승 소리판’ 무대

광주문화재단 23일 토요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3일 오후 3시 전통문화원에서 열다섯 번째 토요상설공연 무형문화재 초청 무대 화연 김선이 ‘전승 소리판’ 막을 올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광주 무형문화재 흥보가 예능보유자 김선이와 제자들이 출연해 판소리의 참 멋과 흥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국악인 김산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김선이(광주무형문화재 흥보가 보유자)의 단가 ‘사절가’로 문을 연다.

조문주(중앙대학교 외래교수)의 수궁가 중 ‘여배라 주부야 ~ 고고천변’, 김수인(국립창극

단원)의 춘향가 중 ‘신연맞이-기생점고’, 이은비(광주시립창극단원)의 흥보가 중 ‘제비점고-제비노정기’, 이현미(전라남도립국악단원)의 심청가 중 ‘주교포해-동동동 내팔’이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남도잡가 육자배기 연곡’으로 흥겹게 마무리한다. 대금 정화완(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 음악감독), 아쟁 서영호(경주신라문화재 국악대제전 대령령상), 고수 박시양(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보유자)이 함께한다.

김선이 보유자는 연금향, 조통달, 오정숙, 김수연 등에게 사사했다. 발성처리 및 소리운용의 공력이 뛰어나 남도소리 보전과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이나라 기자

나주박물관, 30~31일 미운 오리새끼 온라인 공연

국립나주박물관은 오는 30~31일 블랙라이트 인형극 ‘미운 오리새끼’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안데르센 명작 동화 ‘미운 오리새끼’를 블랙라이트 인형극으로 제작했다. 빛이 차단된 어두운 무대 위에서 자외선을 방출하는 조명한 블랙라이트가 쏟아지며 공연이 시작된다. 조명을 사용해 특정 안료를 바른 물체만 야광으로 빛나는 원

리를 활용해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한다.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려한 색채가 흡사 만화 영화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인형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변의 오리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한 미운 오리새끼의 모험이야기는 공연을 감상한 어린이들에게 자신만의 가치와 소중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사한다.

국립나주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일상에 작은 심포가 됐으면 한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061-330-7841)로 하면 된다./이나라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평일 10:00~18:00, 주말 10:00~16: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1